

남북한 자녀가치관의 고찰

The Value of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임 정 하(JungHa Lim), 정 순 화(SoonHwa Ch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ue of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value orientations related to children and curriculum in child-care and education. The secondary data including 2013 research report on the South Korean consciousness and values, the Familial Law Act and the Child Welfare Act of South Korea, the Familial Law Act and the Law of Nursing and Upbringing of Children in North Korea, and a series of *Choson-yeosung* magazines in North Korea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first, it was common that both of social and psychological values of children were found, but the psychological values were more prevalent in the South and the social values were more dominant in the North. Second, parents in both cultures publically agreed that parenting sh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child. However, parents in the South were inclined to support happiness and personal achievement of children, whilst parents in the North were likely to reinforce ideology education producing a pillar for socialism. Third, it was common that both parents of the South and the North were primarily responsible for child-rearing, but the role of government in child-rearing was more emphasized in the North. Lastly, supporting daily routine activities, communication skills, and art activities were included in child-care and education programs in both cultures. However,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relationship were emphasized in programs of the South, whilst ideology education wa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program of the North. The strategies for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the value of childre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fter unification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 남북한(South and North Korea),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 VOC), 자녀양육(child-rearing), 보육·교육과정(child care and education curriculum)

I. 서론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단순히 체제상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넘어 이념상으로도 하나를 이루는 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integration)은 두 개의 상이한 문화가 결합되

는 과정에서 쌍방의 문화적 특성을 모두 수용하는 문화적응(acculturation, J. W. Berry, 1980)의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여러 이질적인 하위 영역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상위체제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접근방법은 동화(assimilation)과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동화란 이주민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5A2A03045034).

* Corresponding Author: SoonHwa Ch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tel: +82-2-3290-2321 E-mail: eagles@korea.ac.kr

이 주류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것으로(M. Gordon, 1964),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은 이들에게 남한의 문화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그러나 분단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은 체제나 가치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접근방법과는 달리 서로의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을 수용하고 보다 포괄적인 상위체제로 발전시켜나가는 문화적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와 이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구조적 통일보다 어려운 것은 사회문화적 통일이다. 이는 곧 외형적, 체제적 차원의 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념적 차원의 통일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사회문화적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핵심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에 대한 이해이다. 가족은 사회제도적 차원을 반영하고 포괄하는 일종의 복합체로서, 가족관계 유형이 바로 사회현상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E. Todd, 1997).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가족내 인간관계이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 직장생활보다도 배우자나 자녀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이지만 부계직계가족의 이념이 강하게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부모자녀관계는 부부관계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면적으로는 부부관계가 가정의 중심이지만 부모자녀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부관계를 위협할 정도로 부모자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O. Chung & S. Chung, 2014).

모든 발달단계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특히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어떠한 양육환경에 노출되는가는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식하에 세계 각국은 영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과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

고,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서도 “어린이 시절이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백지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심리적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잘 교육,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J. Kim, 1986, p. 66)고 생각하여 영유아양육에서 부모의 책임과 아울러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자녀가치관 하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얼마나 이질적인 가치관 하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통합의 중심점을 찾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남북한 영유아양육환경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들(S. Chi & S. Kim, 1999; S. Heo, 2010; K. Kim, 1995; Y. Lee, M. Seo, S. Kim, & Y. Park 2011; J. Lim, 1996; Y. Seong & S. Kim, 2001; O. Yang, 1996)이 다소 수행되었으나, 이들은 주로 유아교육과정이나 보육시설, 유아교사 양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자녀가치관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또,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남북한의 비교를 위한 남한의 자료로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한 남한의 양육가치관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면담내용이 북한의 양육가치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事象)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이다(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5).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근거해 볼 때, 자녀가치관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출산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인 자녀출산가치관이나 자녀양육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인 자녀양육가치관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연구되어 왔다. E. Kim and H. Choi(2008)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양육관으로 명명하였고, 그 구성개념으로 자녀가치, 자녀기대, 양육신념을 포함시켰다. J. Nam and C. Chung(2012)은 자녀양육관의 구성개념으로 자녀가치관, 양육과 교육방법, 양육형태를 포함시켜 살펴보았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자녀가치, 자녀가치관이라는 용어가 자녀출산가치관의 의미로서 자녀양육관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자녀가치 연구의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 VOC)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욕구중심이론(needs-based theory)에 근거한 L. W. Hoffman and M. L. Hoffman(1973)의

연구이다. 욕구중심이론은 자녀를 갖는 것이 부모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가에 근거한 것으로 부모가 됨으로써 충족되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가치 등을 포함한다. 이후 L. W. Hoffman et al.(1978)은 자녀가치를 부부간 애정 강화, 즐거움, 자기 확장, 성인지위 및 사회적 정체감 부여, 성취감과 생산성, 개인적 성숙, 경제적 이점의 7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 F. Arnolds et al.(1975)은 L. W. Hoffman and M. L. Hoffman(1973)의 요인에 근거하여 자녀가치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7개국(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터키, 미국)으로 확장하여 수행하였다. 자녀가치 연구는 1970년대까지 9개국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14개국으로 확장되어 연구되었으며(G. Tromsdorff & B. Nauck, 2005), 자녀가치도 1970년대에는 경제적, 실용적 가치가 강조되었으나 이후 이는 점차 약화되고 심리적 가치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C. Kagitcibasi & B. Ataca, 2015). 이처럼 욕구중심이론에 근거한 자녀가치 연구는 자녀출산과 관련된 긍정적·부정적 가치, 즉 자녀출산가치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며,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아직까지 자녀가치는 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B. Nauck, 2014b).

이러한 맥락의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J. Cha(1980)는 자녀가치를 자녀가 부모에게 충족시켜 주는 요구들로 정의하고 노후의지, 가계계승, 입신출세의 3개 요인을 자녀가치 연구의 전통적 가치기준으로 설정하였다. U. Kim, Y. Park and Y. Kwon(2005)은 자녀가치를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관계적 가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도움이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 등과 같은 도구적 가치를, 심리적 가치는 자녀에 대한 애정, 기쁨, 만족 등 긍정적인 정서적 가치를, 관계적 가치는 부부, 친척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량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한편으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자녀가치 연구는 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G. Trommsdorff(1978, 1983)는 문화비교연구를 통해 개인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아동을 독립적 존재로 간주하며 부모 개인의 자아실현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 반면, 집합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아동을 아직 미성숙하고 어머니와 공생관계인 존재로 간주하며, 어머니 삶의 목적이 자녀중심적이고, 자녀양육을 통한 어머니의 자아실현에 가치를 둔다고 하였다. 이후 H. R. Markus and S. Kitayama(1994)는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개인이 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독립적인(independent) 방식과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또, H. C. Triandis(1995)도 집합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규정되고, 사회규범은 가장 연장자인 남성으로부터 파생되며, 개인의 성취나 관심은 중시되지 않고 협력의 가치만이 중시된다고 하였다. 반면, 개인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 자체가 보다 중시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비교문화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적 특성이 자녀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녀가치는 자녀양육목표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자녀가치 연구는 할머니세대에서 어머니세대, 자녀세대로 자녀가치의 세대간 전이 문제로 확장되어 연구되었으며(J. Ziehm & I. Albert, 2013), 나아가 자녀양육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양육관이라는 주제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비교문화적 관점의 자녀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결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으로 지지되는 가치는 부모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세대간 전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적 가치의 세대간 전이가 개인주의적 가치에 비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J. Ziehm & I. Albert, 2013).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순종이라는 양육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독립심과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양육목표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에 도움을 받고자하는 도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 Tromsdorff & B. Nauck, 2005). 이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가치는 자녀양육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양육행동도 영향을 받게 된다(N. Darling & L. Steinberg, 1993). 이러한 관점의 우리나라 연구에서 W. Lee(1983)는 자녀양육관을 유아중심적 교육관과 성인중심적 교육관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M. Kang and J. Yoon(2002)은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자녀양육관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처럼 자녀가치라는 용어는 부모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에 따라 자녀출산과 관련된 긍정적·부정적 가치인 자녀출산가치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양육가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욕구이론에 근거한 자녀가치 연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북한 자녀가치관은 비록 뿌리는 동일하지만 오랜 분단기간으로 인해 이질화된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 문화가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

도 과소평가할 수 없으므로 비교문화적 관점을 포괄하는 남북한 자녀가치관을 비교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B. Nauck, 2014a, 2014b)에서는 출산율에서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였던 초기 자녀가치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에 대한 실용적 가치는 약화되지만, 이 또한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다르게 작용하며, 그 외의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자녀가치와 출산율을 매개하는 중요 변수로서 사회체계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은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해 상이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자녀가치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대가정을 표방하는 북한의 경우 각 가정에서 부모가 추구하는 자녀가치관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용이하지가 않다. 이는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양육 책임의 상당 부분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영유아보육 및 교육내용을 분석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을 표방하는 북한의 특성상, 국가적 차원의 양육지원, 즉, 영유아보육 및 교육내용은 곧 개별 가정의 자녀가치관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해보는 것은 간접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추구하는 자녀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남북한 자녀가치관 비교를 위해서는 영유아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정과 아울러 영유아들이 실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내용을 고찰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유아보육의 목표를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부모중심적 목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중심적 목표, 발달에서 초기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도와주고자하는 아동중심적 목표로 구분해 볼 때(O. Chung et al., 2012), 집합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북한과 개인주의적 가치를 표방하는 남한은 이러한 보육목표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자녀가치관이 시기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은 자녀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

되고 외부 문화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북한관련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1990년대 그리고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O. Kwon & I. Mun, 2011; W. Lee, 2012). 실제로 경제난은 북한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조선녀성」 기사 내용이나 영유아보육·교육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남북한 자녀가치관을 비교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치관을 자녀출산가치관과 자녀양육가치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먼저 욕구중심적 관점을 반영하는 자녀가치에 근거하여 남북한 자녀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해보고, 다음으로 비교문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자녀양육목표와 영유아양육의 책임규정, 영유아보육·교육과정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영유아보육·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남북한 자녀가치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2) 남북한 자녀양육목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3) 남북한 자녀양육 책임규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4) 남북한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자녀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녀성」과 영유아 관련법령 그리고 영유아보육·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북한 관련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상태이고, 공개된 자료조차도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1956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고, 가정생활 관련 기사를 많이 게재하고 있는 「조선녀성」¹⁾은 북한의 자녀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자

1)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공식 기관지로서 북한의 주요정책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고, 여성용 잡지인 만큼 가정에 관련된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하고 있는 잡지다. 1946년 9월 제1호가 발간되어 1982년 6월 제6호를 발간할 때까지 대체로 월간지의 형식을 유지하였다가 이후 발행형식을 격월간지로 바꾸어 2000년 12월 제6호(루계 제511호)가 나올 때까지 매년 6회 발행하였다. 2001년 1월(루계 제512호) 이후 다시 월간지로 바꾸어 2015년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Table 1. Frequency of articles on value of children in North Korea

Category	Chosun -yeosung	Laws	Total
Psychological value	7	0	7
Social value	43	12	57
Relational value	0	0	0

주. 하나의 기사에 여러 자녀가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중복 계산하였음.

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녀성」 중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에 비치된 2000년 이후 발간된 201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관련 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⁶⁾)도 자녀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외에 자녀양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특성상 자녀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인 영유아교육·보육내용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보육내용은 「광명백과사전7」, 「조선대백과사전11」의 내용을 근거로, 교육내용은 「광명백과사전7」, ‘높은반 교육내용’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자녀가치관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남한의 자료로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⁷⁾, 「2008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⁸⁾ 자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그리고 관련법령(가족법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이용하였다.

2. 분석절차

1단계: 북한의 자녀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녀성」, 자녀양육 관련법령의 내용 가운데 자녀가치관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추출하였다.

2단계: 1단계에서 추출한 내용 가운데 자녀가치관 관련 내용을 다시 육구중심적 관점의 자녀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녀가치와 비교문화적 관점의 자녀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녀양육목표와 자녀양육의 책임, 영유아보육·교육내용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 내용분석을 통해 자녀가치는 U. Kim et al.(2005)의 자녀가치 척도에 근거하여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관계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자녀양육 목표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혁명역군 양성’과 개인의 발달적 가치를 강조하는 신체발달, 인지·언어발달, 인성·사회정서발달로 구분하고, 남한과의 비교를 위해 이들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전인발달의 범주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양육의 책임은 국가, 가정, 부모, 어머니로 구분하였다. 북한의 경우 영유아보육·교육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남한의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북한의 보육내용은 「광명백과사전7」, 「조선대백과사전11」의 내용을 근거로, 교육내용은 「광명백과사전7」, ‘높은반 교육내용’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4단계: 북한의 자녀가치관과 비교할 남한의 자료로는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08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자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과정(누리

2) 주체 79(1990. 10. 24)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2. 주체 82(1993. 09. 23)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35호로 수정보충 3. 주체93(2004. 12. 07)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3) 주체99(2010. 12. 2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309호
 4) 주체67(1978. 04. 18)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호로 채택 2. 주체75(1986. 02. 20)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94호로 수정 3. 주체88(1999. 06. 16)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5) 주체99(2010. 12. 22)년 정령 제 1307호
 6) 주체88(1999. 03. 04)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8호로 수정보충
 7)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1996년 최초 조사(공보처) 이후 2008년까지 5년 주기로 실시해 온 조사이며, 본 조사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10일까지 실시된 「2013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의 결과를 집계, 분석한 결과로, 만 19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8)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김은설, 최혜선, 2008)는 전국 54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3,747명이라는 대단위 표집을 구성하여 20-55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 자료이다.
 9)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과정, 표준보육과정), 관련법령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자녀가치관을 비교·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남북한 자녀가치의 유사점과 차이점

북한의 자녀가치를 살펴보면, <Table 1>에서 「조선녀성」이나 관련법령 모두에서 사회적 가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자녀가치에서 부모 개인보다는 조국의 부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조국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혁명역군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어머니들의 자랑> <여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본분이며 애국사업> <충실성교양을 잘하고 있다> <선군시대의 주인으로> <어린이의 시기별 분류와 각 시기별 특성>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려면>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미래는 창창하다> 등에서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자식을 미래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야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이며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한 애국가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젓먹이아이들을 잘 키우자면> 등에서는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튼튼하게 빨리 자라는 모습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심리적 가치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에서 부모들이 갖는 심리적 가치는 어디까지나 도구적 가치에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의 별도 따올 어머니의 사랑> <자식들을 지능이 높은 어린이들로 키우려면>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등에서 어머니들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자식들을 선군시대의 훌륭한 인재로 키워 조국 앞에 내세우는 것이며, 자식들이 당과 수령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렸을 때 어머니들이 제일 기뻐하며 자식을 낳아 키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여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북한의 법령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는 “국가적으로 여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제6장 제50조)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부모는 아동에게 모범이 되며 그들에 대한 양육과 교양을 잘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여 개인의 선택이나 심리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에서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제1장 제2조)라고 하였고,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 것은 조국의 튼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제4장 제29조)라고 하여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녀가 중요하다’(81.2%)고 응답한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심리적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치에서도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 등의 도구적 가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 등 개인적 행복 추구하고 관련된 심리적 가치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또,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86.9%)이라는 심리적 가치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86.2%)이라는 관계적 가치가 ‘집안 내에서 내 위치가 확고해지기 때문’(56.1%) 등의 도구적 가치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E. Kim & H. Choi, 2008).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2장 제10조)고 명시함으로써 행복이라는 심리적 가치추구권을 강조하였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침범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제1조)고 하였고,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제1조)고 함으로써 심리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2. 남북한 자녀양육목표의 유사점과 차이점

북한의 자녀양육목표를 살펴보면 <Table 2>에서 「조선녀성」의 기사에서는 신체발달과 관련된 기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역군 양성, 인지·언어발달, 인성·사회정서발달, 전인발달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서도 신체발달과 혁명역군 양성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Table 2. Frequency of articles on child-rearing goal in North Korea

Category	Chosun -yeosung	Laws	Total
Whole child development	7	2	9
Physical development	59	9	68
Cognitive & language development	23	3	26
Personality,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11	4	15
Socialist revolutionaries	48	7	55

주. 하나의 기사에 자녀양육의 목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중복 계산하였음.

북한의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밥먹이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과 생활> <어린이들의 교양시기> 등에서는 지·덕·체를 겸비한 아이들로 양육하는 전인발달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또, <태아의 '건강관리부'> <젓먹이어린이들을 잘 키우자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어머니> <건강한 갓난아이의 특징> 등에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건강관리, 영양관리, 산전 태아관리 등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어머니와 어린이지능교양> <어린이의 성격에 따르는 학습방법> <탁아소, 유치원시기 어린이의 언어소유> <자식들을 지능이 높은 어린이들로 키우려면> <애기 때부터 머리를 쓰도록> 등에서는 뇌의 발달, 지능발달, 학습능력이나 주의집중능력 등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을 강조하였다. <어린이의 웃음과 울음> <명랑하고 쾌활한 품성은 어릴 때부터> <자녀교양에서 부모들의 책임성과 역할> <자녀들을 용감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로 키우자면> <아이들의 기질적 특징을 잘 살피자> 등에서는 자녀의 기질을 파악하여 명랑하고 쾌활한 인성을 길러주고, 자립성의 발달과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인성발달과 사회정서발달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에서 자녀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충실성교양을 잘하고 있다> <조국의 미래로 자라요> <선군시대의 주인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사회주의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려면> <자녀들을 혁명의 기동감들로 키워나가도록>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 모두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성하는, 강성대국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내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자녀양육에서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등 여러 영역의 발달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역군의 양성이라는 목표로 귀결된다.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젓먹이어린이들을 잘 키우자면> <봄철어린이 건강관리> 등 16개의 기사에서 신체발달을 통한 혁명역군의 양성이라는 중복되는 양육목표가 언급되고 있었고, <자녀들을 용감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로 키우자면> 등 2개의 기사에서는 인성발달과 혁명

역군의 양성, <자식들을 지능이 높은 어린이들로 키우려면> <언어레절과 부모의 역할> <애기 때부터 머리를 쓰도록> 등 6개의 기사에서는 인지 및 언어발달과 혁명역군 양성, <밥먹이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과 생활> <어머니들의 자랑> <자녀들에 대한 부모심리> 등 4개의 기사에서는 전인발달과 혁명역군 양성이라는 중복되는 목표가 언급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인발달,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을 강조한 많은 기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능력들이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역군을 키워내는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법령에서도 전인발달을 위한 자녀양육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는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제3장 제27조)고 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지능이 발달되고 문화적 소양이 높은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 기관이다.”(제5장 제38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주어야 한다.”(제4장 제35조)라고 하여 전인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제1장 제1조)라고 하여 사회주의 혁명역군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명시하였다. 또,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제4장 제31조)고 하였고,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 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제5장 제41조)라고 명시하여 혁명역군 양성이라는 목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가치관 조사(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책임감(29%) 근면·성실(20.9%),

Table 3. Frequency of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child-rearing in North Korea

Category	Chosun -yeosung	Laws	Total
Government	4	30	34
Family	8	2	10
Parents	17	10	27
Mother	44	3	47

타인에 대한 배려(16.8%), 자립심(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결과(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에서도 자녀가 갖추기를 바라는 덕목에서 근면·성실성(27.3%), 책임감(26.3%), 자립심(10.7%), 정직함(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덕목들은 개인의 인성과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녀양육관 조사결과에서도 남한의 부모들은 집단중심 가치관과 개인중심 가치관 중 자녀에게 보다 강조하여 가르치고 싶은 가치로서 '개인중심 가치'(52.1%)를 집단중심 가치(47.8%)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 Kim & H. Choi, 2008).

법률상으로도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장 제10조)고 하였고, [민법]에서도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제912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781조)고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추구나 행복추구와 같은 개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1장 제2조)고 하였고,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제1장 제3조)라고 하여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강조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장 제1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제1장 제3조)고 명시하여 영유아 개인의 발달이나 복지를 강조하였다.

3. 남북한 자녀양육 책임규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조선녀성」의 기사에서는 어머니의 책임을 언급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부모와 가정,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양육 관련법령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행복한 나라>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이 보다 적극 추진되고 심화될수록 우리 조국의 미래는 더욱 창창하고 사람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휘될 것이다.”라고 하여 자녀양육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복 받은 땅에 태어난 쌍둥이들> <요람> <우리녀성들의 친정집-평양산원> <녀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 등에서는 쌍둥이들과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북한의 자녀양육 관련법령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제3장 제49조)고 하였고,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제5장 제77조)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서도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8장 제71조)라고 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육법](제1장 제2조)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 “국가는 한 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제2장 21조)고 명시하여 임신부와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특히 강조하였다.

자녀양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정교

육과 심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심리>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양에 마음을 합쳐야 한다> 등에서는 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자녀의 교양 교육을 책임지는 직접적 당사자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밥먹이 어린이의 생리적 특성과 생활> <어머니젓의 영양과 젓 먹이는 방법> <젓먹이어린이들을 잘 키우자면> <어린이들의 키와 깊은 잠> <어머니와 어린이지능교양>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어머니>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며> <어머니는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입니다> 등 많은 기사에서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도 어머니이고, 어린이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름 아닌 어머니라는 점에서 아이들의 일차적인 교양자로서 어머니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담배와 어린이의 건강> <임신부가 지켜야 할 점>에서는 특히 임신 시기부터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법률상으로도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 환경을 보장하며 그들의 교육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제4장 제38조)고 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3장 제27조, 28조)에서는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미성년 자녀의 대리인으로 된다.”고 명시하여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에서는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제1장 제6조)라고 하였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제3장 제22조)라고 하여 부모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국가는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제2장 제20조)라고 하여 자녀양육의 책임을 담당하는 여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가치관조사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있어야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91.3%)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의 역할에서 부모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비용 부담(대학교육비)에 대한 응답에서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2.8%)와 ‘일부만을 부담해야 한다’(35.5%)에 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61.7%)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책임을 일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그러

나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53.8%) 결정권을 가져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아내 (39.7%)가 남편(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자녀양육에서 어머니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남한의 법령에서는 부모의 책임과 아울러 국가의 부분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법]에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제4장 제909조)라고 하고,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4장 제913조)고 명시함으로써 자녀양육에서 부모 모두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또,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장 제837조)고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모 모두의 자녀양육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장 제4조)고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6장 제34조의 2)고 하여 자녀양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명시하였다.

4. 남북한 영유아보육·교육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

남북한 영유아보육·교육내용을 비교 고찰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영유아보육·교육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의 영유아보육·교육내용과 비교 고찰해 보았다.

1) 북한의 영유아보육·교육내용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선녀성」에서는 구체적인 보육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교육내용에서는 도덕교양 관련 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선녀성」과 관련법령에서는 사상교양과 도덕교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유치원 높은 반의 실제 교육시수에서는 문화정서교양(노래와 춤교육, 그리기와 만들기 교육)과 체육교육, 다음으로 지식교육(우리말 교육, 셈 세기 교육)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Table 4. Frequency of category on childcare and education curriculum in North Korea

Curriculum of	Category	Chosun -yeosung	Laws	Total
Childcare	Ideology education(Following Great Kim Il Sung and Kim Jong Il)	8	8	16
	Socialist patriotism education	8	8	16
	Intellectual education	3	4	7
	Emotional education	1	5	6
Child-Education	Moral education	2	8	10
	Intellectual education	2	5	7
	Art and emotional education	0	5	5
	Physical education	1	3	4

주. 하나의 기사에 보육·교육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중복 계산하였음.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녀맹조직들이 유치원사업을 옹계 지도하도록>에서는 탁아소는 어디까지나 보육을 기본으로 하고 유치원에서는 교육교양이 위주로 되는 것인 만큼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에 대한 지도에서도 엄격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육내용은 보다 지식교육이 강화되어 있다.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행복한 나라>에서는 전반적인 보육·교육내용을 언급하였고, <참된 보육원의 삶>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워주기 바랍니다> 등에서는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은 나라의 사회주의적 시책을 실현하는 책임적인 사업임을 강조하였다. <탁아소 보육원과 어머니들 사이에 지켜야 할 언어예절>에서는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들의 언어예절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유치원 교육내용에서도 <선군시대의 주인으로>에서는 어린이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직한 충성동이, 재간동이들로 키워내려는 교양원(유치원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언급하였고, <충실성교양을 잘하고 있다>에서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주제로 한 노래 보급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동으로 키우는 도덕교양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탁아소, 유치원 시기 어린이의 언어소유>에서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마치고 소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어휘습득의 중요성, 지식교양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녀맹조직들이 유치원사업을 옹계 지도하도록>에서는 탁아소와는 달리 유치원에서는 지식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법령에서도 사상교육을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학령전 어린이를 위한 보육과 교육의 전반적 지침을 망라하는 법률로서 여기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

에 근거한 교육교양의 중요성(제2장 제11조, 제4장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장 53조)과 아울러 어린이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나가는 영예로운 혁명가로서 보육원(보육교사)과 교양원(유치원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제5장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이었다. 그 외에도,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의 우선적 건설(제2장 제13조), 문화정서교양과 지식교양 등의 중요성(제3장 제22조, 제4장 제34조, 제35조, 제5장 제38조, 제53조)과 더불어 체육교양의 중요성(제3장 제23조, 제5장 제38조)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 것을 갖추어주어야 한다.”(제2장 제13조)고 하여 전반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남북한 영유아보육·교육내용 비교

남북한 영유아보육·교육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남한의 경우 만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과 만3세에서 만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Table 5 참조).

먼저 남한의 보육·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만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 다소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생활에서는 몸을 깨끗이 하기, 바르게 먹기와 안전한 생활에 대한 내용을, 신체운동에서는 감각능력과 신체활동을, 의사소통에서는 듣고 의미 알기와 말하기 등을, 사회관계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감정, 가족에 대한 내용을, 예술경험에서는 예술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자연탐구에서는 사물에 대한 관심과 탐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Table 5. Childcare and education curriculums in South and North Korea

Childcare curriculum		Education curriculum	
South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Daily routine activities	Ideology education(Following Great Kim Il Sung and Kim Jong Il) Socialist patriotism education	Physical exercise/Health	Moral education
Physical exercise			Physical education
Communication skills	Intellectual education	Communication skills	Intellectual education (Korean language)
Social relations		Social relations	
Art experiences	Emotional education	Art experiences	Art and emotional education (song, dancing, painting and manufacturing)
Nature inquiry		Nature inquiry	Intellectual education(Arithmetic)

주. 북한의 경우 영유아보육·교육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보육내용은 『광명백과사전7』 『조선대백과사전11』의 내용을 근거로, 교육내용은 『광명백과사전7』을 근거로 하되 낮은 반은 수업형식을 갖추지 않아 ‘높은 반 교육내용’을 근거로 정리하였음.

있다(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15). 만3세에서 만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이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합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은 연령별로 보다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에 반해 북한의 영유아보육내용·교육과정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따라서 탁아소의 보육내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을 끝없이 따르고 흠모하도록 가르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북한의 탁아소보육교양은 어디까지나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첫 공적인 것이다.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바치시어>에서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한 탁아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상교양 외에도 어린이들의 연령별 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우리말과 글, 노래, 예절 등 지적 교양과 정서교양을 가르쳤다.

북한의 유치원 교육교양내용도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혁명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도덕교양, 지식교육, 문화정서교양, 체육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유치원의 도덕교양은 주로 백두산3대장군 어린 시절 이야기과목과 사회주의 도덕과목을 통하여 진행된다. 사회주의 도덕과목은 어린이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며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가정과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인사예절, 언어예절, 행동예절 등 초보적인 예의와 공중도덕규범들을 알려주며 어려서부터 옳은 버릇과 습관을 붙이도록 교양한다. 이와 함께 세수하기, 이 닦기, 머리 빗기, 옷차림바로하기, 식사 전 손 씻기 등 초보적인 개인 위생과 관련된 행동규범들을 가르친다. 지식교육은 우리말교육과 섹세기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말교육은 어휘교육, 말하기교육, 글쓰기교육으로 구성되며, 섹세기교육은 수표상, 수개념, 섹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정서교육은 노래와 춤 교육, 그리기와 만들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래와 춤 교육에서는 노래를 정확히 부를 줄 알고 그것을 춤동작으로 형상할 줄 알게 하며, 그리기와 만들기 교육에서는 주위의 사물과 현상들을 정확히 보고 그것을 그리며 만들 줄 아는 초보적인 기능을 형성시켜준다. 그 외에도 키를 크게 하고 몸을 단련시키며 기초적인 운동기능을 형성시키기 위한 체육교육이 이루어진다(Joseon Encyclopedia Compilation Committee, 2011). 또한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행복의 웃음 넘쳐나는 유치원>에서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표 5의 내용을 토대로 남북한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보육·교육과정의 연계성과 내용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보육·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고, 연령별로 내용이 확장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 보육과정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육과정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도덕교양’으로, ‘지적 교양’은 ‘지식교육’으로, ‘정서교양’은 ‘문화정서교양’으로

일부 연계되어 있으나, 유치원 교육과정의 체육교육과 지식교육 가운데 일부는 보육과정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교육내용에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신체운동과 사회관계, 자연탐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치원 교육내용에서는 명칭은 상이해도 교육내용은 남한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탁아소의 보육내용은 사상교육 외에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법률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강조한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교양의 중요성과 어린이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나가는 것(제2장 제11조, 제4장 제29조~제31조, 제5장 제41조~제43조, 제46조, 제53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반면, 남한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제4장 제29조)고 명시함으로써 전인발달을 강조하였다. 누리과정의 구성에서도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하며, 이와 동시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자녀가치관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영유아보육·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한 자녀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치에서 남북한 모두 자녀출산과 양육을 가치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북한은 「조선녀성」 기사와 관련법령 모두에서 혁명역군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남한은 자녀로 인한 행복, 즐거움을 중시하는 심리적 가치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관계적 가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한의 경우에는 자녀가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관계적 가치도 중시되었다.

북한의 경우 「조선녀성」 기사와 관련법령에 나타난 지배적인 자녀가치는 사회적 가치였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심리적 가치도 언급되었으나 관계적 가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79.2%)이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대를 잇기 위한 사회적 가치보다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준다는 관계적 가치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언급하기도 하였다(Y. Lee, J. Lee & K. Kim 2011).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사회적 가치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남북한 간에 뚜렷하게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남북한 두 사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징적인 집단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을 표방하는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는 전적으로 사회적, 국가적 의무와 관련된 것인데 반해 남한의 사회적 가치는 국가적 의무와는 무관하게 가문의 대를 잇거나 노후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가족내적인 측면의 도구적 가치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사회적 가치가 크게 작용하였으나, 남한에 정착하면서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관계적 가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관계적 가치나 심리적 가치가 보다 중요한 경향을 보였다(F. Arnold & J. T. Fawcett, 1975). 최근의 조사결과에서도 ‘개인의 행복에 자녀가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와 ‘대체로 중요하다’에 응답한 비율(95.8%)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4.2%)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2013년 조사자료(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에서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81.2%)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심리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초기의 자녀가치 연구는 자녀출산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자녀가치는 출산력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다(B. Nauck, 2014b). 그러나 이와 동시에 출산율에서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였던 초기 자녀가치 연구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출산에서 경제적, 실용적 가치는 덜 중요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교육수준이나 도시화와 같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부모라 할지라도 경제적 가치가 갖는 중요성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 첫째나 둘째 자녀의 출산에는 실용적 가치의 중요성이 덜 강조되지만 둘째 자녀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실용적 가치

가 작용하지 않으면 출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B. Nauck, 2014b). 그러므로 출산력의 측면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종전의 자녀가치 연구와는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출산력은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녀가치와 출산율을 매개하는 중요 변수로서 사회복지체계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B. Nauck, 2014a). 남북한은 상이한 자녀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해 상이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자녀가치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경제난 이후 사회적 지원체계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녀출산 및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통일 이후 자녀가치에서의 남북한의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일 될 것이다.

둘째, 자녀양육목표에서 남북한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전인발달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역군 양성이란 집합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남한은 개인의 행복, 성공 등 개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북한의 「조선녀성」 기사에서는 신체발달과 관련된 기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역군 양성, 인지 및 언어발달, 인성 및 사회정서발달, 전인발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혁명역군 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전인발달,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을 강조한 많은 기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능력들이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역군을 양성하는 집합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한 어린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북한 어린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문항에 81.9%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Y. Lee et al., 2011).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자녀가치에서 남한의 부모는 자녀의 행복 등 개인적 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는 남한의 부모들은 인성교육과 동시에 교육적 성취를 모두 강조하였다. 따라서 조기교육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한글(97.1%), 영어(56.1%), 수리(71.5%), 예능(71%) 등을 모두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부모들 가운데서도 특히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모의 경우 교육수준이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 Kim & H. Choi, 2008). 남한의 개인

주의적 가치관은 조기교육을 부추기고 지나친 교육열을 조장하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북한의 「조선녀성」 기사 가운데 <때 이른 수재교육> <모성애와 지능>에서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교육이 필요하지만 때 이른 수재교육은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적당한 시기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남한의 개인주의 가치관과 북한의 집합주의 가치관의 충돌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 H. Olson, J. DeFrain, and L. Skogrand (2008)는 가족 내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응집성과 개별성의 균형이라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에도 집단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간의 균형은 중요한 문제이다. 응집성은 집합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개별성은 개인적 가치를 보다 중시한다. 집합주의가 강한 북한의 경우 응집성 수준은 높은 반면, 개별성 수준은 낮아 사회통합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응집성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가정으로 간주한 응집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는 달리 개인주의가 강한 남한의 경우 개별성 수준은 높지만 응집성 수준은 낮아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북한의 집합주의 문화와 남한의 개인주의 문화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민 쌍방을 대상으로 서로의 상이한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해나가기 위한 문화적응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집합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의 차이는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집합적 가치를 중시하는 북한에서는 다분히 부모중심적인, 국가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부모자녀관계가 어디까지나 상하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존중해주고 부모자녀 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로 북한 이탈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N. Hong & H. Kim, 2013)에서도 북한이탈가족 어머니들은 남한 저소득층가족의 어머니보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한에서는 자녀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부모자녀 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민주적인 방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남한의 부모 중에서도 집단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들의 경우 과도한 애정표현을 지양하고, 엄격하게 자녀를 통제하며, 체벌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 Kim & H. Choi, 2008).

남북한 자녀양육목표의 차이로 인한 이러한 양육방식의 차이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더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민주적 양육방법이 자녀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 Baumrind, 1967; E. E. Maccoby & J. A. Martin, 1983).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되고 집단의 가장 연장자인 가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양육문화를 경험한 북한의 부모세대에게는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자신이 성장하면서 보아왔던 어머니의 역할이나 실제 자신이 행하였던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남한 어머니들의 역할 간의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 Lee, 2005). 또, 북한에서 경험한 가부장적 가족문화, 고정된 성역할, 수직적 가족관계에서 오는 경직된 부모자녀관계가 남한에 와서 많이 변화하였으나 두 방식 간에 적절한 양육방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 Lee et al., 2011).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등한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해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반영적 경청의 방법이나 갈등상황에서 누가 이기고 져야하는 것이 아닌 무승패법과 같은 효율적 의사소통교육(T. Gordon, 1970)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은 모두 강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통해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 모두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 자녀양육에서 국가의 책임과 어머니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녀성」 기사에서는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책임을 언급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나 자녀양육 관련법령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서 주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였고, 국가의 책임

은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집합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북한은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I. Kim(1997)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 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집합주의 정신이 필요하며, 이는 가정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탁아소와 유치원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제1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 기간 동안 탁아소와 유치원의 원아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4%가 양육은 국가와 부모의 공동 몫이라고 응답한 것(Y. Lee et al., 2011)도 바로 국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상당 부분 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자녀양육에서 주로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태도를 반영하듯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기에서도 ‘대학 졸업까지’가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E. Kim & H. Choi, 2008).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더 이상 무상 영유아보육·교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된 경제난을 국가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족차원에서 타개하고자 유치원과 탁아소의 교재교구비, 기자재 구입비 등의 비용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1). 특히 북한의 주요정책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조선녀성」 기사에서 어머니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가정과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상으로는 평등한 남녀관계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뚜렷한 성역할 구분이 존재하며, 어디까지나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까지나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이지 영유아의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장 제6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을 어디까지나 여성의 역할로 규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양육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함과 동시에 북한

여성들에게는 생계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며(T. Yoon & H. Ham, 2005), 자녀양육자이자 생계부양자로서 북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과부하 현상은 통일 이후 남한의 평등한 역할분담의식이 유입될 경우 부부관계에서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S. Chung & J. Lim, 2014),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다(A. Lim, Y. Kim, & S. Ahn, 2015)는 점에서 부부관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분이 자녀양육 문제인 것(N. Hong & H. Kim, 2013)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가정생활교육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교육은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남한에서 잘 적응하는 탈북가정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주요 요인이 아버지, 즉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Y. Lee et al., 2012),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영유아기는 그 어떤 발달시기보다도 가소성이 충분한 시기로서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도 지속적이다. 그러므로 영유아기 부모용 양육지침서를 제작하여 자녀양육 관련지식과 문제해결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남북한 모두 영유아보육·교육내용에서 기본생활, 의사소통, 예술경험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신체운동과 자연탐구 영역이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 보육내용에서는 신체운동과 사회관계, 자연탐구 영역이,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관계와 자연탐구 영역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관계 영역은 보육·교육내용 전반에 걸쳐 가장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서 남한은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 어린이들을 국가적·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으로, 탁아소에서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도록 교양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는다. 사상교양은 정중하게 꾸며진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 배우는 교양실’ ‘김정일원수님을 따라 배우는 교양실’을 통해 이루어진다(Joseon Encyclopedia Compilation Committee, 2011). 어린이들의 나이별 지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여 우리말과 글 등 지적 교양과, 노래, 예절 등 정서교

양을 하지만(Encyclopedia Publishing, 1999), 북한의 보육내용에서 가장 중심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과 도덕교양 등 사상교양이다. 이처럼 어린이 보육교양에서 충실성교양을 중시하는 것은 이것이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의 기본이며, 어린이 시절이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백지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심리적 바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상교양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어린이들의 지적 발전을 돕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며 몸을 튼튼히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J. Kim, 1986). 유치원교육은 교육교양의 첫 공정으로서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과 지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Joseon Encyclopedia Compilation Committee, 2011)고 생각하여 사상교양과 더불어 교육교양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치원교육에서는 노래와 춤, 놀이, 체육, 우리말 순으로 시수가 많은데, 시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시간을 많이 할당한다는 것이며, 그만큼 중요한 과목임을 의미하는 것이다(Y. Lee & J. Goo, 2013). 이와 같은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차별화는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으나 2012년 누리과정의 도입되면서 점차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영유아보육·교육내용에서는 사상교양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관계의 비중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표준보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은 ‘나를 구별하기’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안정적인 애착형성하기’ ‘내 가족 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리과정은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등으로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관계가 점차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어 나간다. 반면, 북한의 경우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은 강조되고 있으나 한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는 영유아보육·교육내용의 어떤 부분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과거 독일의 통일사례를 통해 우리는 서독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이 동독 교사들에게는 혼란과 무질서, 비체계적인 학습, 순종의 부족으로 보인 반면, 서독 교사들에게는 동독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이 사회주의적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제도와 감시 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S. Yoon, 2005)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내용에서 사회정서학습, 특히 자기이해나 정서이해, 표현, 조절 등 정서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남한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내용에서는 협동심을 함양하는 등 자신과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녀가치에서 북한은 사회적 가치가 지배적인 반면, 남한은 심리적 가치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자녀가치의 차이는 성역할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과부하는 통일 이후 부부관계에서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출산을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규교과과정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역할 인식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양육목표에서 북한은 집단적 가치를, 남한은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양육방식과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녀양육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 북한의 부모들은 영유아 발달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영유아기 부모용 양육지침서를 제작하여 자녀양육 관련지식과 문제해결 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북한의 영유아교육·보육내용에는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이 거의 없는 만큼 자기이해나 정서이해, 표현, 조절 등 자신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남한의 경우에는 자신과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정서학습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라는 동일한 민족의식과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으나 오랜 분단경험으로 인해 가치관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많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전반적인 자녀가치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남한의 자료로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양육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자료나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자료와 비교할만한 북한의 자료가 없어서 「조선녀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것은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여 목적이거나 성격, 수집방법이 상이한 자료를 비교하였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발간되는 「조선녀성」의 기사내용을 수량화하고, 자녀가치관이 반영된 영유아보육 및 교육내용과 자녀양육 관련법령에 포함된 자녀가치관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보완함으로써 남북한 자녀가치관의 전반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영유아보육·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다양한 방법이나 자료를 통해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가 보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rnold, F., Bulatao, R.,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Lee, S. J., & Wu, T. S. (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Vol. 1. *Introduc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Honolulu, HI: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Arnold, F., & Fawcett, J. T. (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Honolulu, HI: East-West Center.
- Lim, A. R., Kim, Y. J., & Ahn, S. H. (2015).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The role of paternal tempera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5), 71-86.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pp. 9-25). Boulder, CO: Westview.
-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15). *Childcare curriculum*. Retrieved from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30001/d1_30008.jsp
- Cha, J. H. (1980). The consciousnes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In Korean Social Science Association (Eds.), *Continuity and change of Korean culture* (pp. 1-58). Seoul: Korean Social Science Association.
- Chi, S. A., & Kim, S. J. (1999). A study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uth ·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 Education*, 9(1), 1-23.
- Chung, O. B., & Chung, S. H. (2014). *Understanding marriage and family*. Seoul: Hakjisa.
- Chung, O. B., Kwon, M. G., Kim, K. E., Kim, M. J., Rho, S. H., Park, Y. J., Sohn, H. H., Eom, S. J., Youn, J. J., Lee, K. H., Lim, J. H., Chung, S. H., Jeong, H. H., Choi, H. S., & Hwang, H. J. (2012). *Introduction to child care and education* (2nd ed.). Seoul: Hakjisa.
- Chung, S. H., & Lim, J. H. (2014). A comparison of the Korean family valu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4), 97-127.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Encyclopedia Publishing. (1999). *Joseon encyclopedia 11*. Pyongyang: Encyclopedia Publishing.
-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rdon, T. (1970).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Peter H. Wyden.
- Heo, S. K. (2010). *The study on practical experiences of parents from North Korea regard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Focusing on the different educational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Korea.
- Hoffman, L. W., & Hoffman, M. L. (1973).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 T. Fawcett (Ed.),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population* (pp. 19-76). New York: Basic Books.
- Hoffman, L. W., Thornton, A., & Manis, J. D. (1978).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pulation Behavior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1(2), 91-131.
- Hong, N. R., & Kim, H. J. (2013). The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of North Korean immigrant mothers and Korean low-incom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4), 217-236.
- Joseon Encyclopedia Compilation Committee. (2011). *Kwangmyong encyclopedia 7: Education, language, publication & report*. Pyongyang: Encyclopedia Publishing.
- Kagitcibasi, C., & Ataca, B. (2015). Value of children, family change, and implications for the care of the elderly. *Cross-Cultural Research*, 49(4), 374-392.
- Kang, M. H., & Yoon, J. Y. (2002).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spectives and attitudes on child-rearing between parents' generation and grandparents' generation. *Journal of Child Studies*, 6, 7-21.
- Kim, E. S., & Choi, H. S. (2009). *A study on the child-rearing perspectives of Korean* (Research Report, 2008-06). Seoul: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Kim, I. S. (1997). *The thesis of the socialistic education*. Tokyo: Chongryon Central Standing Committee.
- Kim, J. H. (1986). *Child care and education*. Pyongyang: Social Science Publishers.
- Kim, K. S. (1995). *Comparative study on the pre-school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U. C., Park, Y. S., & Kwon, Y. E. (2005).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1(1), 109-142.
-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1). *A study of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Kwon, O. K. & Mun, I. C. (2011). The North Korea's economic reproduction structure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s on the origin of Songun political economy. *North Korean Studies*, 7(2), 135-171.
- Lee, B.-M. (2005). A qualitative research on North Korean refugee parents' adaptation process as par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9(4), 691-726.
- Lee, W. Y. (1983).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s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W. Y. (2012). Recent social and family life changes in North Korea.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4(10), 3-13.
- Lee, Y.-J., Lee, J., & Kim, K.-M. (2012).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policy measures to support children of North Korean migrants (ISBN 978-89-97492-

- 24-4 93330).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ee, Y.-J., & Koo, J.-Y. (2013). An analysis of the cohe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post-reunification (ISBN 978-89-97492-46-6 93330).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ee, Y.-J., Seo, M. H., Kim, S. H., & Park, Y. J. (2011). *A study on child-care in North Korea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 (Research Report, 2011-19). Seoul: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im, J. T. (1996). Study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 97-126.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1-101). New York: Wiley.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pp. 89-13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values of Korea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values of Korea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Education. (2015). *Nuri-Curriculum for age 3-5*.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web/100062/ko/board/list.do?bbsId=315>.
- Nam, J. E., & Chung, C. H. (2012). An analysis of articles on the view on childbearing of Korean parents in age low birth -with emphasis focused on Chosun daily newspaper articles from 2000 to 2010.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1), 109-124.
- Nauck, B. (2014a). Value of children and the social production of welfare. *Demographic Research*, 30, 1793-1824.
- Nauck, B. (2014b).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Results from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urvey in eighteen areas in Asia, Africa, Europe and America.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1, 135-148.
- Olson, D. H., DeFrain, J., & Skogrand, L. (2008).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6th ed.). New York: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Sung, Y. H., & Kim S. J.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day care systems for childre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2, 108-133.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5). Naver Korean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Query=%EA%B0%80%EC%B9%98%EA%B4%80&query=%EA%B0%80%EC%B9%98%EA%B4%80&target=kr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 Todd, E. (1997). *A discovery of Europe: Anthropological European history* (K. K. Kim, Trans.). Seoul: Kachi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ommsdorff, G. (1978). Discussion and comment. In J. T. Fraser, N. Lawrence, & D. Park (Eds.), *The study of time III* (pp. 466-470). New York: Springer-Verlag.
- Trommsdorff, G. (1983). Future orientation and soci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8, 381 - 406.
- Trommsdorff, G., & Kornadt, H. (2003). Parent-child relation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L. Kuczynski (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pp. 271-307). Thousand Oaks, CA: Sage.
- Trommsdorff, G., & Nauck, B. (Eds.) (2005). *The value of childre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Case studies from eight societies*. Lengerich: Pabst Science.
- Yang, O. S. (1996). A comparison of child care service i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93-112.
- Yoon, S. Y. (2005). Die situation und bildungs reform der vorschulerziehung in der Bundes Republic Deutschland.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0(1), 1-25.
- Yoon, T.-L., & Hahm, H. (2005). The South and North Korean women's culture of everyday life: A comparative study on housework and child rearing.

Family and Culture, 17(2), 3-32.

Ziehm, J., & Albert, I. (2013). New developments and recent research questions in the project "Value of Childre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Diskurs Kindheits und Jugendforschung, Heft, 1-2013 S*, 113-118.

Received: September 12. 2015

Revised: November 15. 2015

Accepted: November 30. 2015